

박수근, 소박한 이웃의 삶을 그리다



고태화 글 | 홍정선 그림 | 155쪽

〈아기를 업은 소녀〉
초등학교 4학년 미술 교과서 4단원 17쪽

박수근은 1914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평생 가난한 화가의 삶을 살다 1965년 5월 6일 간경화와 응혈증을 앓다 저세상으로 떠난다. 이때 그의 나이 52세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이틀 뒤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

“한평생 그림을 위해 살고, 생활 수단으로 삼고 살아오던 서양화가 박수근의 급격한 죽음은 그대로 한국 예술가의 불우한 일면을 보여 준다. 아틀리에에는 커녕 화구나 이젤도 제대로 없이 침실을 그대로 화실로 썼던 이 가난한 화가는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멀어…….’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학습 목표)

박수근의 작품 〈귀로〉는 2008년 미국 뉴욕 경매 시장에서 6억 5000만 원에 팔린다. 그런데 이 그림은 1960년대 초 어느 미국인 부인이 단 돈 20달러에 산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값이 비싼 그림이지만 박수근이 생전에 팔았을 때는 그림 한 점에 쌀 한 되나 한 말(열 되)쯤 되었다. 이렇게 그림이 썼으니 그의 아내 김복순은 콩자반 한 숟갈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김환기 다음으로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 2013년 호당(1호는 옆서 크기) 값이 2억 9917만 원이었다. 2007년 한국 경매에서 〈시장 사람들〉은 25억 원, 〈빨래터〉는 45억 2000만 원에 팔렸다. 그는 집이 가난해 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그 뒤 일하면서 혼자 그림 공부를 했다. 당시 그림에 재주가 있는 이들은 모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양 미술을 배웠다. 하지만 그는 유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이 그를 가장 한국적인 화가가 되게 했을 것이다. 우선 그의 그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왜 그의 그림이 다른 화가들의 그림과 달리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 박수근에게는 국민화가, 민중화가, 서민화가,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화가란 평가가 잇따른다. 그 까닭을 알아보자.
- ◎ 그의 그림면은 이끼 낀 오래된 비석돌이나 바윗돌 질감이 난다. 또 흙벽, 오래된 방 벽지, 이끼 낀 화강암 질감, 흙빛이다. 그래서 그림면 색상이 소박하고, 정적(靜寂)·고요할정·고요할적)이며,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는 왜 이런 질감을 그림면의 바탕으로 했을까?
- ◎ 박수근은 보통학교 때 들일을 마치고 저물녘 들판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농사꾼 부부를 그린 밀레의 〈만종〉(1857~1859)을 보고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한다. 네이버에서 밀레의 〈만종〉을 찾아보고 어떤 그림인지 알아보자.

(독전 활동)

이원수의 동요 <겨울나무>를 불러 보고, 박수근의 '나무' 작품을 감상해 보자.

→ 이원수의 <겨울나무>(1957)는 아래와 같다. 밑줄 친 곳은 이원수의 원래 동요이고, 괄호 안은 작곡가 정세문이 바꾼 곳이다.

나무야, 옷 벗은(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오지(찾지)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지내(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는(얘기도)바람께 듣고
꽃 피는 봄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 선생님은 이원수의 동요 <겨울나무> 가사를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여 주고, 아이들과 같이 노래를 듣고, 불러 본다. 노래를 듣고, 불러 본 다음 어느 구절이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지 발표하게 하자. 아마 거의 다 1연의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과 2연의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를 꼽을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절로 겨울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 이원수의 동요 <겨울나무>를 공부한 다음, 박수근의 <나무와 여인>(1962), <나무와 두 여인>(1964), <귀로>(1964), <강변>(1964) 이미지를 텔레비전으로 보여 준다. 같은 제목으로 된 작품이 많으니까, 선생님은 작품 연도를 잘 살펴보고 앞에 든 그림을 찾아야 한다.

→ 이 그림에서 ‘겨울나무’는 박수근 자신으로 봐도 된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식민지 아래에서 그림을 배우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가난한 예술가의 삶을 살았다. 그는 언제나 외롭고 추운 겨울을 견뎌 내야 하는 ‘겨울나무’였던 것이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겨레의 삶 또한 이 겨울나무처럼 외롭고 힘들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래도 그는 의연하게 휘파람을 불면서 견뎌 냈다. 이 겨울나무와 여인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아이들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독후 활동)

박수근의 그림면을 살려 그림 그려 보기

→ 박수근 작품의 그림면 질감을 살릴 수 있는 종이를 준비하게 한다. 누런 과자 상자 인쪽면, 상품 상자 인쪽 면을 가져오게 한다. 되도록 면이 평평하고 반질반질한 것을 준비하게 한다. 젯빛 상자 인쪽 면도 괜찮다.

→ 2B 연필(연필심 끝이 날카롭지 않게, 뭉툭하게 깎아야 한다), 크레파스·색연필(흰색, 검은색, 밤빛 계열 색 두세 개)을 준비한다. 수채물감과 붓(둥글고 끝이 뭉툭한 붓 가운데 제법 큰 붓)을 준비한다.

→ 박수근의 작품 가운데 인물을 크게 그린 작품을 보여 준다. <빨래터>(1950), <독서>(1950), <공기놀이하는 소녀들>(1965), <아기 보는 소녀>(1963) 이미지 사진을 텔레비전으로 보여 준다.



→ 그림 주제는 놀이터 풍경으로 하면 좋겠다. 대신 박수근처럼 배경은 마음 쓰지 말고 인물의 몸짓을 크게 그리게 한다.

→ 처음에는 2B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다음 색연필로 테두리 선과 섬세한 부분을 그리게 한다. 여백은 박수근의 그림면처럼 그리게 하자. 이때 조심할 것은 여느 때처럼 여백을 빈틈없이 칠해서는 안 된다. 색연필로 아주 작은 점을 그리듯이 험렁하게 그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수채물감으로 아주 얇은 밤빛을 개어 뭉툭한 붓끝으로 색연필 자국이 없는 여백을 툭툭 점을 찍어 마무리한다.

